

장창은 어디다두고
들오느니 창검이라
아들을 몸에다 품고
돌아드느니 장판교로다

- 제보자 : 강병옥 (여, 80세, 노량진 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 이별가

기차는 떠나간다 구슬피를 해치며
저문다 해는 떠나는 입이여
간다고 아주가며 아주간들 잊으라
밤마다 꽃길속에 울면서 살아요

- 제보자 : 임경수 (여, 71세, 노량진2동 공원노인정, 1993, 4, 3)

5) 남한강의 무가

(1) 한국 무격의 위상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통상 트랜스와 같은 이상심리 상태에 있어서 초자연적 존재 (신·정령·死靈)와 직접 접촉교류하고 이 과정에서 예언·신탁·사제자·치료 행위 등의 역할을 하는 인물(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주술종교적 형태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샤먼들의 성격과 특징은 어떠한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김태곤은 한국 무당의 성격 한계를 대략 몇 가지로 상론하고 있다.

① 신(神)의 초월적인 힘을 체득하는 신병(神病)의 체험을 거쳐 신권화(神權化)한 사람이어야 한다. 평범하던 한 인간이 신병을 통하여 신을 체험하고 신의 영력(靈力)을

얻어서 신과 교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신의 소명에 의한 종교현상으로 의식한다.

② 무당은 신병을 통하여 획득한 영통력을 가지고 신과 만나는 종교적 제의인 굿을 주관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굿은 무당들의 정통적인 종교적 표현이며 행위적 현상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그 이유는 신병을 체험하여 영통력을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의를 독경식(讀經式)이나 불교의식에 의존한다면 무당 본래의 제의인 굿과는 이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③ 무당은 민간인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 민간층의 지지를 받고 종교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민간층의 종교적 지도자로 인정되기까지는 민간층의 종교적 지지에 의한 사회적 공인이 전제되며, 무당이 비범한 신권자로서 민간인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에만 가능하다. ④ 무당의 신앙대상신(信仰對象神)은 신병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산신·천신·칠성신·용신 등의 자연신 또는 장군신·왕신(王臣) 등이고, 무당이 소망을 비는 신앙의식인 굿은 이들 신을 대상으로 한다.

무당을 이렇게 규정했을 때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성격 차이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무당의 갈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른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북부지역에서는 신이 내린 강신무가, 남부지역에는 조상 대대로 혈통을 따라 계승되는 세습무(世襲巫)가 분포되어 있다. 세습무는 강신무로부터 분화되어 사회적으로 정착, 제도화하여 영력이 도태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무당을 정리하면, 일차적으로 중부와 북부의 전통적인 강신무인 무당 박수류와 남부의 세습무인 호남의 단골, 영남의 무당, 제주도의 심방이 있고, 이차적 방계무로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선무당류와, 호남·영남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 명두·동자 등이 있다.

이어서 그는 무의 유형과 지역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속은 중·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이 성무동기(成巫動機)·신관·제의를 세 부분에서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세 부분은 어느 것이나 다 서로 유기적인 연대성이 있는 것으로서, 성무동기에 따라 신관이 결정되고 신관에 따라 제의의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 셋을 결정짓는 주요인은 성무동기로 집약시켜 볼 수 있다. 중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무당은 강신 체험을 통해 무당이 된 강신무가 지배적인 데 비하여 남부지역은 혈통을 따라 무당의 사제권이 세습하여 계승되는 세습무가 지배적이며, 성격상으로 볼 때에는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신무는 성무동기가 강신으로 인한 신의(神意)에 있다고 스스로 믿으며, 무의 주된 기능 또한 강신으로부터 얻은 영력이다. 세습무는 성무동기가 사제권의 인위적 세습인 동시에 무의 주된 기능이 영력과는 관계 없이 제의를 집행하는 사제권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남부지역에도 '명두'와 같은 강신무 계열이 분포되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계일 뿐 남부지방 무당의 주류는 아니다. 또한 제주도의 심방은 세습무이면서 영력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지역의 세습무인 '단골'이나 영남지역의 세습무인 '무당'과는 성격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세습무와 강신무의 중간형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부와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무당형은 ① 강신체험에 의하여 영력을 가지고 있고 ② 강신한 '몸주신'과 그 몸주신을 모신 신단이 있으며 ③ 신관이 구체화해서 신의 실재를 확신하며 ④ 가무(歌舞)로 정통 굿을 주관하는 사재인 동시에 영력에 의하여 점을 친다.

단골형은 호남의 '단골'과 영남의 세습무 '무당'이 이 유형에 해당되는데, 단골형은 ① 혈통에 의한 사제권의 세습, ② 사제권에 의하여 일정지역의 관할권인 단골판이 계승되고, ③ 강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자가의 신단이 없으며, ④ 신을 향하여 일방적인 가무로 정통굿을 주관하는 사제이다.

제주도에 분포되어 있는 심방형은 ① 혈통에 의한 사제권의 세습이 제도화되고, ② 영력으로 인한 신의 인식이 확고하여 구체화된 신관이 확립되어 있으나 자가의 신단은 없으며, ③ 직접적인 강신영통이 없이 매개물인 무점구(巫占具)를 통해서만 신의 뜻을 물어 점을 칠 수 있고, ④ 신을 향하여 일방적인 가무로 정통 굿을 주관하는 사제이다.

명두형(또는 맹두형)은 죽은 아이의 영의 강신체험을 통해서 된 무인데, 이 죽은 아이의 영은 혈연관계가 있는 아이의 영이다. 여자아이의 영이 내린 무를 '명두', 남자아이의 영이 내린 무를 '동자' 또는 '태주'라고도 한다. 이 유형의 무는 중부와 북부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특히 호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영남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이 명두형의 특징은 ① 죽은 아이의 영이 강신되어, ② 영에 의하여 점을 전문으로 하는 점쟁이며, ③ 초령술(招靈術)을 가지고 있으나 ④ 가무로 정통 굿을 할 수 없다.

무당형과 명두형은 강신에 의한 영통력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강신무계통으로 분류되고, 단골형과 심방형은 양자가 모두 사제권이 제도적으로 세습되면서 제의의 사제가 주기능이 되기 때문에 세습무계통으로 구분된다.

제의면에서 볼 때 중·북부지역 강신무의 굿과 남부지역 세습무의 굿에서도 차이가 있다. 강신무가 굿을 할 때는 신이 내려 무와 신이 합일해서 제의형식이 일원화되지만, 세습무는 굿을 할 때 신을 향하여 기원하는 일방적인 사제로서 신과 무가 대치된

이원화현상을 보인다. 또한 세습무는 굿의 의식절차가 강신무보다 체계화된 데 반하여 신복(神服)을 상징하는 무복(巫服)의 수가 극히 적거나 거의 없는 편이지만, 강신무는 영력 위주여서 세습무의 굿에 비하여 의식절차가 유동적인 편이며, 무복의 수가 많고 화려한 편이다. 또 무악(巫樂)에 있어서도 강신무는 타악기 위주이고 세습무는 타악기에 현악기가 첨가되어 있으며, 춤에서도 강신무는 단조로운 춤에 도무(跳舞) 위주이고, 세습무의 춤은 극히 예능하여 영남지역의 경우 1~6장으로 춤이 다양하다.

최길성은 한국적 인물신을 상론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탁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다. 최영은 위기에 있는 국란을 평정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 개인의 차원을 넘은 것은 물론 가족의 차원을 훨씬 넘은 것이다. 흔히 큰일이기는 해도 사회를 위한 것이라 하기보다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역사적, 국가적이라는 것이 판단될 때 위대한 사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

둘째, 위와 같은 일을 한 것만으로는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인간적인 공적일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공적은 인간적인 역사책에는 기록될 수 있지만 신앙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그것이 신앙화되기 위해서는 억울하다는 것이 조건이다. 자기가 하자는 일이 크면 클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한은 크고 넓다. 개인 간의 원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호 간의 폭이 너무 좁다. 어떤 여인이 시집살이가 심해서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자. 그런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계제도에서 생긴 것이라 생각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개인에 한한 것이 아니고 여성이 남성에게 가지는 여성의 부계제에 대한 한으로 추상화된다. 따라서 여성의 죽음은 남성의 죽음보다 원한이 많은 것이 되고 '한 많은 이 세상'으로 불리게 된다. 이와 같이 한이 깊이와 폭을 가질 때 신앙의 대상이 된다.

셋째, 혈연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억울하게 죽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의 삼족(三族)을 멸하는 법에 따라 후손이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 또 혈족이 있다고 해도 조상으로 받들기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사람이 시조신으로 만들어진 사례는 보지 못했다. 만일 조상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면 사회적 신으로 되기보다는 가족신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족적으로 외로운 유교식으로 말하면 무주고혼(無主孤魂)인 것이다. 그들은 집에서 임종(臨終)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객사, 타살 등에 의한 불행한 죽음을 당했다. 그들의 가정환경이나 죽을 당시의 세세한 상황은 모두 원사라는 개념 안에 매몰되어 버려 한(恨)으로밖에는 표현되지 않는다.

이상 3가지를 요약하고 좀더 추상화하면 가족을 떠나서 큰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무속에서 모신다는 것이 된다. 이는 가정을 벗어나서 큰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는 것이 바른 삶의 한 가지라는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다. 억울하게 죽는 것이 한의 상징이고 한을 푸는 메커니즘이라 보는 것이 현상적인 설명이다. 억울하게 죽는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속신앙의 근본 구조인 동시에 우리문화의 한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큰일, 위대한 일을 소신대로 밀고 나가다가 억울하게 죽어도 민중의 마음 속에 살 수 있다는 즉 종교적·문화적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것이 무속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심성이라고 논급하고 있다.

최길성의 논지에 한 가지 유형을 덧붙인다면 최영 같이 한에 간 인물이 아닌 김유신 장군이나 김이사부장군신도 하나의 유형에 들어 간다는 점이다. 이를 필자는 한국적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잠정적 결론을 내려 본다.⁸⁷⁾

(2) 노들나루의 새남굿

새남은 서울 지역에 있는 망자를 천도하기 위해 부르는 망자천도(亡者薦度)굿이다. 이능화(李能化)는 《조선무속고 朝鮮巫俗考》 제16장 무행신사명목(巫行神事名目)에서 굿(Kut)이란 대개 우리 속어(俗語)에는 험하고 굿은 일을 굿(Kut)이라고 이른다 하고 하면서 비오는 날을 '굿은 날' 이라 하는데, 상사(喪事)가 났을 때 굿은 일(Kuchinil)이라고 하는 데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새남굿을 '지로귀산음신사(指路歸散陰神祀)' 라고 표기하면서 속칭 '지노귀새남'은 망령(亡靈)의 명복을 비는 신사(神事)로 공계(空界)를 떠돌아다니는 망령(죽은 혼)들을 위한 굿으로 해석하고 있다. 불가에서는 중음신(中陰神)들을 위해 칠칠재(七七齋) 및 현왕재(現王齋)를 베풀어 놓고 그 영혼의 명복을 빌고 속히 왕생하길 비는데 이들 제의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시조(時調)에서 우리는 과거 화랑(花郎 : 가무 행악을 주로 하는 광대의 일종)들이 죽은 이의 길을 어떻게 천도시켰는지 그 장면을 상도(想到)해 볼 수 있다.⁸⁸⁾

靑개고리 腹疾하여 주근 날 밤의
 金두텁 花郎이 존호고 새남 갈식
 靑뿔독 거대는 杖鼓 던더러쿵 호는디 黑뿔독 典樂이 저 힐니리 분다
 어딴서 山진 거북 돌진 가재는 舞鼓를 둥둥 치는니

87) 김선풍 외, '무격과 인물신을 통해 본 한국무교의 특징' 《한국의 무신》,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예맥출판사, 2004, pp. 151~154.

88) 이능화, 《조선무속고》, 백록출판사, 1983, pp. 151~152

예요(例謠)로 든 시조 속의 '즌호고'는 '지로(指路·길을 인도함)하고'와 같은 뜻이고, '새남갈석'은 '새남굿하러 갈새'라는 뜻이다.

이능화보다 앞선 기록으로는 유만공(柳晩恭)이 지은 《세시풍요 歲時風謠》의 시월 스므날(十月二十日)을 들 수 있다.

처음 추위에 새남신(賽南神)을 맞이해 가니
손석(孫石)의 찬바람이 정히 사람을 괴롭게 한다
다투어 건너가는 여러 아가씨는 무슨 큰일인지
노량진 무당 마을은 시장과 같다

十月二十日

初寒迎去賽南神

孫石罷 風正惱人

競渡群娘胡大事

巫村如市驚梁津

〈賽神日賽南船 工孫石冤死之日 每多寒風謂之孫石風〉

상기 한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새남굿을 준비하는 소무각시(小巫閣氏)들의 분주한 모습을 일견하여 알 수 있다.

또 할주(割註)에는 “새신(賽神)은 새남(賽南)이라 한다.”고 되어 있어 푸닥거리 굿 따위를 하는 일이 새남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원래 민간에서는 '지노귀새남'의 준말로 '새남'이란 말을 쓰는데, 그 분명한 어원과 뜻은 분명치 않고 다만 망인천도제의(亡人薦度祭儀)로서 죽은 지 49일 안에 한다. 흔히 칠칠재(七七齋)와 같이 하기도 하며, 또는 지노귀굿과 혼용하기도 한다.

지노귀굿은 매장한 뒤 곧바로 하는 '진지노귀'와 탈상 무렵 또는 몇 년 후에 날을 받아서 의식을 거행하는 '마른지노귀'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새남을 왜 '새남(賽南)'이라고 표기했을까? 이때의 '남(南)은 훈(訓)이 아닌 음차(音借)에 불외하다. 《세시풍요》의 할주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새신을 일컬어 '새남'이라 한다.” 했다. 그렇다면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자못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방위의 개념이 아닌 훈차로 쓰인 탄생(재생)의 뜻인 '낳다'의 명사형이 아닐까 일단 추단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망자굿은 사자(死者)가 새로 '다시 낳는다(탄생한다)'는 재생놀이가 많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미래에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깐 놀이가

주류를 이룬다.

한국의 재생(再生)놀이 중에는 진도의 '다시래기'를 빼놓을 수 없다. 원래 '다시래기'란 재래(再來)[再生], 곧 '다시 태어난다(낳는다)' 또는 '다시 즐긴다', '같이 즐긴다'는 뜻이라고 현지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씨김굿에서의 다시래기는 죽음을 노는 놀이이다. 다시래기에는 '판수(장님)놀이'와 '해산과장'이 있어 흥을 돋운다. 죽음은 어둠이다. 판수의 어둠의 세계와 사자(死者)의 죽음(어둠의 세계)가 잘 암유화(暗喻化)되어 있다. 죽음의 현장에서 통통한 배불뚝의 여인[알 상징]이 나오고 '아이 낳기 놀이(해산 과장)'으로 끝나는 극적 양식(樣式) 속에서 우리는 재생제의(再生祭儀)를 발견하게 된다.

더군다나 흥이 고조되면 재생의 노래 '진도아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리(알이) 아리랑쓰리 쓰리랑 아라리(알 낳기가, 알마나)가 낳네((시작되었네)"라고 하면서 탄생(알 낳네·탄생하네·부활하네)을 노래로도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란 평상의 질서가 깨지고 무너지는 일이다. 인간이 죽음을 거쳐 돌아가는 곳은 알(空), 곧 '알집'이라고 믿고 있다. 그곳의 시간은 재생을 위한 인고(忍苦)의 시간이다. 중국 설화가 거인 반고(盤古)는 혼수상태인 알 속에서 1만 8천 년을 지냈다고 한다.

엄청난 시간이다. 알집은 이처럼 고고지성(呱呱之聲)을 지르기 위한 준비과정이었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안식처가 된다.

초혼(招魂)할 때 돌아가신 분에게 "복(復)~복~복"이라고 세 번 외치는 이유도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 오십시오(온다)"라고 하는 부활·재래의 의미가 담겨 있다.

또, 관을 들고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나올 때 양밥이라고 해서 바가지를 깨고 나오는 것도 벽사기능(辟邪機能)도 있다지만 실은 알을 깨고 나오리라는 재(再)탄생의 실체(實體) 주원성(呪願聲)으로 이해할 수 없을까 추단(推斷)해 보기도 한다.⁸⁹⁾

(3) 한강의 무가

다음은 동작구 노량진 본동 김대길의 집에서 구득한 <대감놀이>와 <바리데기> 2편을 소개하기로 한다.

• 대감놀이(안당제석굿)

아제석 대함대석 켜제석요 불이올사 신에제석 제석님 불공을 할제 골른 쌀로 공양미 짓고 삼

89) 김선몽, 《서울새남굿》, 문화재관리국, 1996, pp. 39~49

색채소에 오색과일에 두부도 짓고 튀각도 놓고 갖은 편들제 향로향에 불뵈히고 소지삼장 올린 후에 오날여기 오신손님 재수소망 번거수소망 생겨주마 어이 - 처라 - 얼수 - 후 - 얼수 (공수)

어허 - 구자 대함은 제석에 젼제석이 아니시라 일월오황 황사제 불사 제불님 수이 아니시라 도와주가 제석님 수이에서, 누린것도 다마시고, 비린것도 다마신다. 해돋아 일광제석 달이돋아 월광제석 아니시라, 우리 제석님 수이에서 - 지씨에 계주야 - 너의안에 안당에 불사가요 바르고 돤바른 불사가 아니시리 부정한일 많이 놓았구나 손오로 만진 부정도 많아 놓았고 입으로 읤긴 부정도 많아 놓았고 눈으로 본 부정도 많았으나, 귀루다가 들은 부정도 많아 놓았고 산으로 올라 산부정도 많았고, 들루나려 들부정도 많아 놓았고나, 허지만 불사님 수이에서 한거리 놓고 가겠노라.

(제석굿 노래가락)

그린 늑소와 은허구야 쥬 - 니오 쥬주야 쥬추로다
불사제석님 쥬추로다 설명 두가살 - 인들 떠나른가
불사제석 자부신잔에 후추삼잔을 맺어 후추차
대추차요 지성이라고 쌍빌찬가 제석님 나리신 자취
인간이 몰라 이내 하회 하선이다. 여러분 제 - 석님
하외로다 천세에 빌허를 왔오
부모자손에 만 - 연주
천연산 술을 - 빌러 재수소망 생기소사

(타령)

나미아미타불 나미 아미타불
어떤중생이 내려왔나
어떤중생 이 내려왔나
천금산에 황금산에 황에중생
한산모시 지은 장삼을 입으시고
금낭가사를 어여피고
다홍티를 둘러 매고
새모시 고깔을 숙여 쓰고
바리때는 손수건에 핑쇠 목탁을 지니시고
나미아미타불 육한장을 글머집고
흐늘거리 내려 오실제 바라시주 내려왔오
아침재미 돌아가다 저녁불공을 올리시고

저녁재미 돌아가다 아침불공을 올리시고
제석중생이 내려올때 바라시주를 내려왔오
가진각성 시주님네들 바라시주를 하옵소서
바라사오 바라를 사오 명바라면 북바라오
이바라를 사시오며는 없는 자손을 점지하고
옥동같은 하늘애기 금동같은 따님
아들을 낳면 효자를 낳고
따님을 두시면 열녀를 낳고
나라에 충신동이요
부모에게 효자동이 어떤 자손을 점지할까
일가수이에서 소서헌 정성을 태산같이 받드시고
가지를 상덕무로 도와주마
어이 처라 - 열수 - 허 - 열수
(대감놀이 중 공수)
어허 - 어허구자 욕심많은 내대감
탐심많은 내대감 아니시 라 -
이골 양상 도감대감
어살용 부근대감 아니시라 -
대감님 수이에서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원시루 덕반에 차시루 그한에 받으시던 내대감이신데
이것이 다 무엇이나
요지에 일월이요
순지에 죽지사로구나
어허 쾌쌌허구나
허지만두 우리대감이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대양푼에 갈비찜에
소양푼에 제육찜
푸드득이 장끼찜을
받으시던 내대감이신데
이것이 다 무엇이나
얻어다 놓았느냐

손톱으로 박박 할퀴어 놓았느냐
 어허 께쌌하도다
 우리 대감이 소서헌 정성을
 태산같이 받들어서
 가지로 성당무를 도와주마
 (공수)
 어허 - 어허얼수 - 어허허 -
 너의부리 어떤 부리 아니시랴
 지씨에 대주야 이것이 다 무엇이나
 우리 대감이 욕심 많고 탐심이 많아서 술루다가 목욕을 하고
 고기루다 고기루다
 양치질을 하시던 내대감인데
 부연 막걸리 한잔
 원소머리 받으시던 내대감이시던데
 이집에서 덩덕 쿵덕쿵
 니나노 깡깡하니
 무엇허니 어허 - 허
 대감이라니까 벼슬이 높아서
 승지참판 대감인줄 알지마라
 우리 대감은 대주에 직성대감
 제주에 몸주대감이 아니시랴
 큰대감 작은대감 그렇지만 우리대감
 멋이 멋디로 똑 떨어졌네
 어떤 대감이 내대감이냐
 일상에 좋은것은 덩덕쿵
 평생 좋은것은 깡깡깡깡
 안어들이시던 대감이냐
 저들이시던 내대감
 여들이시던 내대감이냐
 어떤대감이 내대감이여
 앞뜰에도 저벽저벽
 뒷뜰에도 뚜벅뚜벅

모래도 집어 주루 -루
흔적을 뵈시던 내대감
어떤대감이 내대감이냐
어사를 돌던 내대감
낮이면은 어사를 돌고
밤이면은 순력돌아
재수소망을 생겨를 주마
도와를 주시던 내대감
산지조종은 군령산이요
수지조종은 황애수라
문지조종은 남대문이요
대감에 조종은 운연대감
아이조종은 강임도령에
만신에조종은 덕물산
어떤대감이 내대감이냐
어떤대감이 내대감
원시루 덕반두 나구 좋구요
뒷다리 후각도 나도 좋아
어떤대감이 내대감이냐
어떻게 좋은지도 모르겠네
(창부타령)
어지러운 사바세계
의지할곳 바이없어
모든미련을 다떨치고
산간벽절을 찾아가니
송죽바람은 쓸쓸한데
두견조차 슬피울어
귀촉도 불여귀야
너도울고 나도울어
심야삼경 깊은밤에
같이울어 새어볼까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어하 - 어하 등등 내사랑아
공들아니 백발이요
면치 못할것 죽음이로다
천왕지왕 인왕이시며
실로황제가 복히씨라
성덕이 없어 봉해시며
말잘하는 소진장도
육국제왕을 다달렸으되
염라대왕을 못달래고
한번죽음을 못면했으며
그리하신 영웅이야
죽어사적이라도 있건마는
우리초로 인생이야
아차한번 죽어지면
움이나나 싹이트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 잎진다 서러마라
너의명년 춘삼월이면
다시 피워 보건마는
우리인생은 한번늙으면
다시깡소년 어렵도다
어떻게존지도 모르겠구나
어찌나존지도 모르겠네

(공수)

그렇지만 우리대감이
소소헌 정성을 태산같이 받들어서
월래를 생각하고
장래를 길게봐서
상덕무리 도와주시마

(창부타령)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놀진 못하리라

임과 날과 만날 적에는 백년을 살자고 언약을 해고
산을 두고서 맹세를 하고 물을 두고서 정참이 드니
산수정참을 간곳이없고 다만이 낮이건 이별이라
이별 두자 누가 냈가 사랑 두자를 누가 냈가
옛날 옛적에 진시왕은 만고서적을 불사를제
이별두자 어이하여 사르지 않고 남겼다가
우리들에 - 못할 노릇을 왜 이다지 시키는가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놀진 못하리라
다리리 - 리 닷리리 - 리리 아니 놀지 못하리라
섬섬옥수 부여잡고 만단정이 어제런듯 조물이 시기를 하여
이별될 줄을 뉘라 알지 이리생각 저리궁리 생각 끝에는
한숨이라 알미웁구두 아쉬워라 분하구두 그리워라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나만이 혼자서 고통이로다(후렴)
어 - 이 어하듯둥 내사랑아 어 - 이 등둥 내사랑아
아니노진 못하리라 귀척동방 천리두야 바라보기
모연쿠나 은하작교가 꼭 무너졌으니 나도
차라리 잊을거나
아름다운 자태거동 임에게 매졌으니 잊으리라고
맹세를 해도 참아 진정코 못 잊건네 (후렴)
사랑 사랑이라니 사랑이란게 무엇이냐
알다가도 모를사랑 민다가도 속은사랑
오목조목이 알뜰사랑 왈각달각 싸운사랑
무월삼경 깊은사랑에 공산야월 달밝은데
이별한 임도 그린사랑 이내 간장을 다녹이고
지긋지긋이 애띤사랑 남의정만 뺏아가고
줄줄 모르는 알민사랑 이사람 저사랑 다고만두고
아무도 몰래 호젓이 만나 소근소근이 은근사랑
얼시구 좋다 내사랑이지 사랑사랑 참사랑아
아 - 아 텅텅 아니 노진 못하리라
진국명산 만장봉에 청천삭출 금부영은
소색은 반곡응산곡이요 숙이는 중요 줄인걸인데
만만세집 금탄이라 태평연월 좋은시절 전조사를 꿈꾸는듯

유유한 한강물은 말없이 흘러가고
 인왕으로 넘는해는 나의 감회를 돌으는듯
 얼시구나 지화자 좋구려 아니놀진 못하리라
 추강월색 - 달밝은 밤에 벗없는 이내몸이
 어둠침침 빈방안에 외로히도 홀로누워
 밤은 적적 야심헌데 침불안석에 잠못자고
 몸부림에 시달리어 꼬꼬 닭은 울었구나
 오늘도 뜬눈으로 새벽맛이를 하였구나
 얼시구나 지화자가 좋아 아니 놀지 못하리라
 디리 - 디루디디루 - 봄들었구나 봄들어와요
 이강산 삼천리 봄들었구나
 방실방실 웃는 꽃들 우줄우줄 능수버들
 지지배배 종달새며 졸졸 흐르는 물소리라
 앞집에 숫닭이 꼬끼여 울고 뒷집 삼살개 경경 짖네
 앞논에 암소가 엄매엄매 뒷뉘 - 산꿩이 끼깁
 물이고 가는 큰애기 걸음 삼춘가절에 흥이겨워 사풍산풍
 아기장 아기장 흐늘 - 거려서 온다
 얼시구나 지화자 좋구려 아니 놀진 못하리라
 이밤이 왜 이다지 길어 그임이 그리운가
 그임이 그리워서 이밤이 긴가
 그리워 애달퍼도 부디 - 오지 마옵소서
 만나서 아픈가슴 상사보다 더하오니
 나혼자 기다리면서 남은 일생을 보내리다
 얼씨구 지화자 좋아 아니놀진 못하리라

• 바리데기

나라로 나라로 공심문
 저리로 저리로 남서가보니 우소이다
 지어다 심심산천 내리십소와
 이십팔소스물은 어데땅에
 서리판진이우소이다
 천님이 알우소서 치어나 뵈옵시니



해뜬세계 달뜬세계
사바세계 남서로 비치어서니다
북으로 강남은 대한민국이웁고
이나라 허선국이온데 이씨 주상금마마
변으로 함흥 지닌단천
정산시이 변이웁서이다
양주는 대목안에 경북궁 정덕경
창복궁 창덕궁 정경색경 정매새지기
우패을 박주시지이우성이다
이령성 구루시니 세월이 여류하야
무정세월 양유패라 광풍이 건듯부니
연으로 계와서 아문년웁고
달색조우루는 아무달이웁고
날루공수는 아무날이웁고
우여 슬프다
아무망재 해운에 시절인지
불가에 천술인지 시왕영정 하직없는
기을여위 초단에 선왕자 진부정
마른기자 어예살이 사제삼정 바드시고
이단에 진옥이 삼단법수 새남박에
쇠설문 대설문에 연주당난 살지
그문전 돈전 바드시고 청개 바드시고
지여다백자일때 장재님
천두하고 날이여
유자이에 산인은 성불하고
반구름 재일안에 홍무란 홍산취
백무란 백산취 이밀가 대턱받고
앞으로 영친배살 뒤로 시왕배살
춧불황내 일백곡송 상노상얏 청기름
발심 받으시고 우여 슬프다
아무망재 썩은입 썩은귀로 산우궁
말미를 자자 우왕이 들어다가

열대왕전 위로하고 삼사제 허참하고
 안땅에 물려받고 보양에 하직하고
 만조상에 원근지계 받고
 상산에 살문지계 벗고 칼산지옥 벗고
 불사에 철용지계 벗고
 대감에 협수지계 벗고
 칼산지옥 불산지옥 구렁지옥 배암지옥
 독사지옥 눈지옥 물지옥 불지옥
 억만산천 제지옥 문을 열어
 이구등낙 시왕재천 왕생극락
 서방경투 부처님 귀자되어
 가는 날이로서이다
 이령성 구루시니 세월이 여류하야
 무정세월 양유패라 광풍이 건듯부니
 이때는 어는때야 춘삼월 후시절이
 되었는데 이씨 주상금마마님
 십칠세가 되옵시고
 칠대중궁전 마마님
 정계오신 말씀 세녀삼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아
 우리조선국에 영현무녀가 있는냐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 증전에 도물을 숙배나숙배
 삼삼배 들인후에
 천하로 다지박사 있습니다
 지하로 소스락시 제석궁에
 모란박사 있습니다
 대왕양마마님 정경오신 말씀이야
 그러하면 천하궁에 무복이나 하사이다
 복채를 쥘서이다 복채가 무엇인고
 금돈닷돈 은돈닷돈 겹수건 석사세치
 거스리 사송을 하옵시니

천하궁에 다지박사
지하궁에 소스락시
제석궁에 모란박사
산우산 배옥반에
쥐오줌 던지시니
천산은 만신에
허튼산이 지구
두번째 상암이 지는이다
세번째는 대왕양마마님
정상이 지는이다
볼레면 보시레나
올해 반길년 피계년에
길에거등 하시며는
칠공주를 보시리라
내년명년에 기래거들 하시며는
세나라 왕을 봉하시리다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여
대왕양마마님 중전에 들어
숙배나 삼삼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입니다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이야
내전이 비였고나 일간이 여삼춘야
하루 열흘갈에 단상감 태기를 봉하시고
간택을 입시에 뽑으라 하옵시니
사월팔일에 초간택 뽑으시고
오월 금단에 이가택 뽑으시고
칠월칠석날 오작교 다리놓아
까막까치 기시석은 아니로서이다
국수덩 싸덩이면 빌한님 설한님
춧불한님 족두리한님
장안안이 꽃백되고
만백성이 천세만세 부르시니

대왕양마마님은 궁경전을 정하시고
 시우안전 하신후에 후렴우녀
 초공주 으다 이령성 구루신이
 세월이 여류하여 무정세월 양유패라
 광풍이 건듯부니 칠대궁중정마마님
 길예하오신지 수삼년이 되셨는데
 이우에 업는 무란이 나누매야
 슬하에 생쌀내 나고
 그수에 해감내 나고
 탕에서 날장내 나고
 금광초예 풋내 나고
 동창에 건듯부는 찬바람도 연꽃같은
 고운얼골 새알김니 기는매야
 잔뼈는 녹는듯
 골근뼈 희이는듯 하고
 시를매야 어름거침 준주안석
 잣베게에 급일기도 실은매야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님 정저 안에 들어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 후에
 봉서를 올리시니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마씀이야
 칠대중궁마마님계옵서 기운이 계시거든
 천하궁에 만복이나 가사이다
 복채를 주서니다 복채가 무엇인가
 은돈닷돈 금돈닷돈 겹수건 석자세치
 거스리 사송을 하옵시여
 천하궁에 다지박사 지하궁에 소스락시
 제석궁에 모란박사 산우산 배옥반에
 쥐오금 던지시니 척사는 만신에
 허튼산이 지구 두번째 사암이
 지는니다



세번째는 대왕양마마님
정산이 지는이다
보려면 보시레나 반길년 피계년에
길예거등 하섰으니
초공주를 보시라다
산길년에 길예거등 하섰으면
제나라 왕을 봉하실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님께 들어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봉서를 올리시니
대왕양마마님 정경오신 말씀이야
공주를 나면 서잔들 아니라라
칠대중궁정마마님 삼시문안 끊지마라
한두달에 가출사고 삼아석달 피를모아
뒤동산 후원안에 오백까지 열매랑은
내전을 다드려라 녀달에 자리잡고
다섯달에 반짐받고
여섯달에 연짐받고
일곱달이 되었스니 산수청 배살하고
앞으로 흑사돋음 뒤우로 유사돋음
석민관 칠세하고 센진시전 백묵전
거치시고 아홉달 구색되고
열달십색 단색 채년후에
공중을 돌아보니 안제가 진동하고
산아를 돌아보니 녀니공주
탄생을 했나니다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 증전에 들어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리시니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칠대중궁정 마마께 몽사를 알아오라
하옵시니 한억께 해가돈아 베는니다
또한억께 달이돈아 베는이다
그애기 애명을랑 바리장수로
애명짓고 아홉방 십장속에
고이메거 고이앞에 공기인
고이고이 길러내라
우여 으다 이공주
이령성 구루시니 세월이 여류하여
무정세월 양유패라
광풍이 건듯부니 칠대중궁정마마님
예우예있든 문난이 나누메야
슬하에 생쌀내 나고
거수에 해감내나고
탕에서 날장내 나고
궁광초에 폰내나고 연꽃같은 고운
얼굴 새알김이 기는매야
잔뼈는 녹는듯 굴근뼈는 후이는듯
동창에 건듯부는 찬바람도 싫으메라
얼음금침 준주안석
잔베개 금일기도 싫으메야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아
대왕양마마 중전 안에들어
숙배나 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리시니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이야
칠대중궁정마마님 월역에 계시거든
천하궁에 문복이나 가사이다
복채를 주서이다 복채가 무엇인가
은돈닷돈 금돈닷돈 겹수건 석자세치
거스리 사송을 하옵시니
천하궁에 다지박사 지하궁에 소스락시

제석궁에 모란박사 산우산 배옥반에
쥐오금 던지시어 천산은 만신에
허튼 산이 지구 둘째 사암이지느니라
세번째 대왕양마마님
전산이 지는이다
보려면 보시례야 반길년 피계년에
길예거등 하셨으니 이공주 보시리라
산길년에 길예거등 하셨으면
세나라 왕을 봉하실걸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 탐전에 들러
숙배나 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리시니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칠대중궁정마마께 삼시문안 끊지마라
한두달에 갖을살아
삼아석달 피를모아
뒤동산 후원안에
오백가지 열매랑은
내전으로 다드러라
넉달에 자리잡고
다섯달에 반짐받고
여섯달에 연짐받고
일곱달에 칠색이 되옵시니
산수천 배살하고
앞으로 흑사돋음
뒤우로 철세하고
색민간 철세하고
생전시전 배묵전 거치시고
아홉달 구색되고
열달십색 단색 채년후에
공중을 돌아보니 행내가 진동하고

산하를 돌아보니
녀이공주 탄생을 했습니다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 중전에 들어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립니다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그애기 아홉방 집장속에
고이메거 고이입퍼
안저지면 업저지면
부모상공께 저지면 공기부인
고이고이 길러내라
우여 으라 이령성 구루시니
세월이 여류하야 무정세월 양유패라
광풍이 건듯부니 칠대중궁정마마님에
우여엇든 무난이 나누메라
술하에 생실내 나고
구수에 해감내 나고
금광초에 풋내 나고
탕에서 날장내 나고
동창에 건듯부니 찬바람도 싫으메라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아
대왕양마마 증정에 들어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 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입시니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몽시를 알아오라 하옵시니
홍도화꽃이 꺾오저 베느니라
별이 쌍쌍이 초마앞에
떠러저 베는이다
대왕양마마님은 한낱한시에
몽시를 얻으시니 대명전 대들보에

청룡황룡이 설여 저비느니라
이번 뫼사는 적실하고
태뫼적실하니 천하궁에
문복이나 가사이다
복채를 주서니다
복채가 무엇인고
은돈닷돈 금돈닷돈
겍수건 석자세치
거스리 사송을 하옵시니
천하궁에 다지박사
지하궁에 소스락시
제석궁에 모란박사
산우산 배옥반에
주오금 던지시니
척산은 만신에 허튼산이 짓고
일곱째 공주
두번째 사암이 지느니다
보려면 보시레냐
반길년 피계년에
길예거등 하섰으니
칠공주를 보시리다
산길년에 길예거등 하섰으면
세나라왕을 봉하실걸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등이
대왕양마마 탐전에 드러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리시니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문복이 영타한들 문복마다 마출소야
행계가 이저 죽을 날을 모른다고
지어무얼 안다더냐
칠대중궁정마마께 삼시무안 끊지마라

한두달에 같이살아
삼아석달 피를모아
뒤동산 후원안에
오백가지 열매랑은
내전으로 다들여라
턱달에 자리잡고
다섯달에 반집받고
여섯달에 연집받고
산시청 배살하고
입곱달이 되옵시니
앞으로 흑사돋음
뒤우로 유사돋음
색민간 철세하고
세전시전 백문전 거치고
아홉달 구색되고
열달십색 단색이 채년후에
공중을 둘러보니
행내가 진동하고
시아를 도라보니
녀이공주 탄생을 했느니다
칠대중궁정마마님 연꽃같이
고운얼굴 옥고름 쌍쌍이
흘리시면 무사한 면목으로 들으시요
대왕양마마님께옵서 모이천
대전별감 정계비서 우이하여
춘당대를 돌아들어
공주를 바라보니
여의소리 웬일인고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님 중전에 드리
숙배나숙배 삼삼배 들리시면
대왕양마마께 일옵기로 단백하고

못알옴기로 단박하고
일곱애기 상전 받다느니다
대왕양마마 깜짝 놀라시면
산우산 배옥반을 치시면서
애기내다가 뒤동산 후원안에
버리라 하옵시니
칠대중궁정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국가에 셤육을 벌름들언지내다
버리라 하옵시나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아
쉬영자나 해가거라
국가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민조종 시하백관들아
쉬영지나 해가거라
국가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하면 허릴없고 하릴없다
일이 알조고라
이리안 두렁이에 생일생시적에
고루메 채년후에 뒤동산 후원안에
버리다 버리데기 더지다 더지데기
버리고 돌아스니 산천초목이
시는듯하고 물소리로 벅을삼고
두견소리 노래삼고
세월이 여류하여
무정세월 양유패라
광풍이 건듯부니
대왕양마마님 만민조종
신하백관 우헌문 대장정면
내씨 웅이하여 군중을 도라가서
동녁을 바라보니 서기가 웬일이냐
세녀상궁 삼천궁녀 제주상궁들이
대왕양마마님 중전에 들러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리시면
애기내다 버린지가
삼아석달이 되었는데
애기 울음소리 은은히 들립니다
대왕양마마님 말씀야
그애기 데려다가 수중에
넣으라 하옵시니
애기를 데려다가 보오시니
눈에는 실개미가 가득하고
귀에는 왕개미가 가득하고
국가에 셀육을 모른듯
엇지내다 버리라는고
옥쟁이 불러라 옥함을 짜노시고
애기 옥함속에 집어넣고
옥병에 젖을짜
기우려 대여 주시고
금거북 잠을쇠로
어슷비슷 채년후에
칠대중군정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버리는 애기 이름이나 지어주고
구왕에 칠공주로 금자두자 색였는니다
그중에 의대신 함정을 둘러메고
결문밖 구아문 나서
한천리 들러미고 두천리 둘러메고
삼아세천리 가느라니
동해수 서해수 흐르는 장해수에
함정울집 어더은니
첫번째는 용소슴하고
두번째는 게소슴하고
세번째는 물빛이 피빛이 지고
뇌성벽력이 진동하더니

하늘에서 청학이 내려와
한날께 까라주고
한날께 덮어주고
물속으로 금거북이 나와
함정을 안고 도라서니
석가여래 팔만을 거느리시고
인간에도 나오실때
동녘을 바라보니
저기는 서기가 방공했다
무엇이 봅니까
너이는 도가멸의 수술이사바
여일강 못따와 일으면 한곳을
다다르니 난테업는 거품속에
함정이 뇌였고나
남자나 같으면 기자나 삼으려나
너이공주 무엇하리
금자두자 색였으니
한곳을 다다르니 산은철이 옥하야
비리공덕 할미하라비
자지궁 노래하고 노감태기 규겨쓰고
유안장 걸터집고 나스니
석가여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이렇게 생겼는고
이산중 직힘으로 비리공덕
할미 하라비로서이다
무슨 공덕을 했는고
목마르니 물을주어
득수공덕 했는이다
배고프니 밥을주어
기사공덕 했는이다
그중 다리없음은 다리놓아
월천공덕 했는이다

척없는 애기질은
공덕이 제일이로소이다
석가여래 하시는 말씀이
그리 젓업는 애기하나
길르라 하옵시니
비리공덕 할미하라비가 하는말이
이녀는 집도 없사옵고
먹을것도 없사온데
그런 중난한 애기를
어찌갓다 기르라 하옵시나
석가여래 하시는 말씀이
그애기 갖다기르면
없는집도 생길터이고
먹을것도 생길것이니
어서어서 바삐갓다 기르라 하옵시니
십리만큼 애기 울음소리
오리만큼 은은히 들리니
애기 울음소리 차츰차츰 찾아가니
난데없는 산중에
초가산간이 노였고나
팔만경을 읽으니 문이 물리며
극락경을 읽으니 함정문이 열이며
애기나이 일곱살이 접셨는데
천지간에 만물지중 모른것이 없으시고
땅을 주름을 잡으시면
애기하는 말씀
날김생도 버러지도
아마아바가 다있는데
나는 어찌 어마아바가 업는가
하라비는 아바로소이다
땅은 어마로소이다
천지간 만물지중 하늘땅이

제조를 하셨거나
인간 괴로움을 어이 나오리
어서어서 어마아바 찾아주소
절라도 입좁는 왕대밭은 아바시라
하시며는 양끝잘라 집으시고
삼년탄생 애곡하니
그거아바 아니오릿까
뒤동산 입넓은 먹으나무
이모저모 팔모치고
양끝잘라 집으시고
삼년탄생 애곡하니
그거어마 아니오릿까
절라도 입좁은 왕대밭은
멀고멀어 못가이
뒤동산 입넓은 먹으나무에
삼시문안 끊지말라
세월이 여유하여 무장세월양유패라
광풍이 건듯부니 대왕양마마님
이날일시에 몽살를 얻으시니
하늘노서 천애동자 내려와서
대왕양마마 앞에안아 멩패를 주서이다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만민조정에 웬책이 있다드냐
만민백성에 웬문안 있다드냐
그도 아니오라 얘기 내다버린 죄로
용궁 기자로소이다
깜짝놀라 깨어나시니
남가는 일몽이라
청애동자 온데간데 없느니라
대왕양마마님 정계오신 말씀야
만민조정 신하백관 우린문
대장땡겁 내씨드라

애기 찾아들이라 하옵시니
애기 내다버린 지가
십오년 열다섯 해가 되옵는데
어부에 밥이되어 소녀는
곶문밖을 나스면 천끼이 되느니라
그중에 외대신이 소인이 찾것느이다
그리하면 오경문을 풀어주라
가경문을 푸러주라
그두다 싫으니다
천리만리 마를 주서이다
곶문밖 구아문 나서
한천리 버계타고 두천리 버계타고
삼아세천리 가느라니 비리공덕
할미하라비가 대문문에
우에업는 그동실니 웬일이냐
외대신 하는말이
아가공주 대왕양마마님
무난이 우중하오시니
애기어서 나스거라
애기하는 말씀이
무슨 표적을 가지고 왔는가
외대신 하는말이 청망중에 잇었느니라
애기 하시는 말씀이
오든길 잊지말고 어서바빠 가서이다
외대신이 한천리 두천리 삼아세천리
더되달아 곶문밖 구아문 디리다라
대왕양마마 탐전에 들러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리시면
애기 찾엇거니와 대왕양마마님
엄지찍어 해패받아 주서이다
생월생시 주서이다

왼손으로 받아 품에 품고
곶문박 구아문 나서
한천리 두철리 삼아천리 건느라니
애기가 동해수 서해수 흐르는
장여수를 금장반에 떠다
한가운데 놓고 사방으로 재배하니
대왕양마마 엄지하고
애기 엄지하고 그저께야 응하드군
의대신이 하는말이 국수덩을 대오랏가
싸덩을 대오랏가
애기 하시는 말씀이
국수덩을 내 알드냐
싸덩을 내 알드냐
남북하고 비리공덕 할미아에비더러
잘있으라 당부하고 강님산 넓은뜰에
내리달아 한천리 두천리 삼아세천리
달이달아 곶문박 구안문 달이달아
대왕양마마 중전에 드리
숙배나숙배 삼상배 들인후에
글월상달 봉서를 올리시니
대왕양마마 정계오신 말씀야
애기손목을 금쳐 잡으시여
옛정김에 버렸드냐
화김에 버렸드냐
추어서 어찌 살았드냐
더워서 어찌 살았드냐
배꼽파서 어찌 살았드냐
어머님 그리워서 어찌 살았드냐
애기하시는 말씀이
추운것도 어렵셨고
더운것도 어렵셨고
배꼽픈것도 어렵셨고

나두러오기 기다려라
고름에 투서찍고 문지방에 투서찍고
꺾문박 구아문 나스니
연꽃같이 고운얼굴 준수같은 옥로를
쌍쌍이 집으시니
한천리 가오시고 두번 집으시니
두천리 가오시니 삼아세천리 가느라니
백발노승이 섰다가 허는말이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무엇이 그렇게 생겼느냐
서자대군으로 부모시왕 가는이다
부모시왕 같것 같으면
나가화를 가지고 왔느냐
잊어서 못가지고 왔느이다
바랑에서 낫화를 꺼내주니
한번 저으시니 물이 육지가 되고
또한번을 저으시니 산은 평지가 되고
동으로 저으시니 홍유리 잠문이 열려
홍계장군이 서계시고
서으로 저으시니 백유리 자문이 열려
한가운데 저으시니 한유리 자문이 열려
황계장군이 서혀시고
우방나그네 죄승하고 십대당이 느러앉으시고
왼편으로 저으시니
억만산천 제지옥이 문이지며
억만나졸들이 칠팔에 액매구리 울듯하니
지옥가리 지옥 보내시고
시왕가리 시왕 보내시고
우으다
아무망제 바리공주 뒤를따라
이구등락 시왕재천 왕생극락 서방경투
부채님 귀자되어 가는 날이로소이다

한곳을 다다르니
 무장십이 바둑을 푼다 누을 쳐떠보며
 네가 귀신이나 짐승이나
 무엇이 저렇게 생겼느냐
 얘기하시는 말씀이
 귀신도 아니옵고 짐승도 아니옵고
 서자대군으로 부모시왕 왔느니라
 부모시왕 왔을것 같으면 물값을 가지구 왔느냐
 청망중에 잊어서 못가지고 왔느니라
 그리하면 앞동산 뒤동산 꽃밭에
 물삼년 길어다 부어 갖추어 주려느냐
 그두부모 시왕같으면 그리하오리다
 나무값을 가지고 왔느냐
 청망중에 잊어서 못가지고 왔는이다
 낮없는 나무삼년 대줄소냐
 그두부모 시왕같으면 그리하오리다
 불값을 가지고 왔느냐
 잊어서 못가지고 왔느니라
 불없는 물삼년 대줄소냐
 그두부모 시왕같으면 그리하오리다
 이일병 부시에 누구심차 돌에아남산
 수리치에 다령을 헛느니라
 제가앞으로 봐도 여자몸 뒤우로 봐도 여자몸
 일곱애기 산천받아 주려느냐
 그두부모 시왕같으면 그리하오리다
 초경을 허락하고 삼아경에 근이맞어
 사해를 집을삼고 등축을 베개삼고
 금잔디를 요를삼고 구름을 제일삼고
 셋별로 훗불삼고 애기 나온지가
 석삼년 아홉해 되었는데
 일곱애기 산천받아 놓았으니
 역수삼천리 어이가오

부모시왕 늦어가니 약수를 주서이다
무장성이 하는 말이
앞강은 황천강 뒷강을 유사강
물구경이나 하고가오
애기하시는 말씀이
물구경도 경이없고
앞동산 뒷동산에 꽃구경이나 하고가오
꽃구경도 경이없고 어서약수를 주서이다
무장성이 하는말이
여덟홀아비를 어찌하료
일곱애길랑 데리고 가오
애기하시는 말씀이
일곱애기를 데리고 나가면
무장성은 어찌하료
무장성이 하는말이
이필이종부라 애기뒤를 쫓을서라
애기하시는 말씀이
나올적이 혼자몸이 아홉이 가느라니
자란애기 걸리시고 어린애기 업으시고
어정쩡 머무러 한곳을 다다르니
아우려 올 피바다에 밑없는 배가
없는배 불든배 총든배
칠팔월에 액매구리 올듯하고
가는 저배는 무슨배요
나라의 의족이요 부모엔 불효자요
동기에 우애없고 일가에 화목지 못하고
적은 되로 주고 큰되로 받아먹고
장안진인 우거 더주고
남의말 여드러 씹부치고
억만산천 제지옥으로 가는 배로소이다
또한곳에 다다르니
아우여울 피바다에 머리풀어 발상하고

칠팔월에 액매우리 울듯하고
가는 저배는 무슨배요
하탈망재 객사망재
받을것 못다받고 가는 배로소이다
또한곳을 다다르니
초불로 연락하고 풍유가 자자하여
가는 저배는 무슨배요
우여 으다 아우망재
살아생전 선심많이 하고 돌아가서도
받을것 다받고 가는 배로소이다
또한곳을 다다르니
영전섭전 금자두자가 웬일인고
소애대에 방성수죽 삼마 살뿔장안에
곡성소리가 웬일이냐
나무베는 목동아이 입을열어 말을 아니하니
애기 업엇던 일곱자 일곱치 수건을 끌러주니
그적에야 입을열어 말을하고
배안에든 애기는 인산거동을 모르시고
배밖에만 애기는 인산거동을 압니다
그적에야 애기가 깜짝놀라 무장심하고
일곱애기하고 풀숲에다 숨기시고
비내뻘 땅에 꽃고 땡기풀어 나무에 걸고
머리풀어 니치시고 마목마목 다령해라
증전에 오르시면 천개를 떼구르시고
지개를 손수굴러 것매 일곱속매
일곱열네매른 고를푸러 전하시고
숨자리는 입에넣고 비리용은 눈에넣고
뼈살이는 살에너니
대왕양마마뎌 깨어나시며
초경에 들엇던 잠일드냐 삼사경에 드렸던 잠일드냐
그두 아니오라
나같은 애기가 국가부전 했느니라

대왕양마마님께옵서 애기 발바닥
손바닥을 만지시면
국을반을 베어주란 소녀가
국도진이 의야국이웁고
사대문에 드는천을 받을주라
소녀가 천도지니위야 천이웁고
소녀가 죄를지고 왔느니다
네죄가 무슨죄냐 무장싱하고 근이맞어
일곱애기 사전 받아 왔느니다
네죄가 아니고 내죄로이다
무장싱 꺾문안에 들라 하옵시니
사무가 걸려 못듭니다
반만혈고 들라 하옵시니
귀는 하늘에 달고 귀는 짚신짜만하고
코는 줄병만하고 눈을 통방울만하고
손은 무릅아래차고 발을 석자세치
삼십팔척 서기 서를세
하늘 바를 응해 치는니다
애기는 삼십삼천 설은여덜땅에
영경 응해 치고이다
너이는 천상배필이다
소녀가 살노릇 하겠나이다
살노릇이 무엇인고
은으왕에 몸이되여
큰머리 단장 입단치마 소뎡에 소조고리
은하몽두리 쥐세방을 선네부채 넓으나
홍피 소두령에 대두령에 지어다
백자일에 망제천두하고
나리여 유자일에 산인은 성불하고
반구름 재일안에 홍무란 홍산쥐
백무란 백산쥐 이말가 대턱받고
앞으로 연친 배살 뒤우로 시왕배살

촛불행래 일백곡성 상노상압
 쟁기름 발심 받으시고
 우여 으다 아무망제
 산우궁 말미를 씹은입 씹은귀로
 자사우왕이 드러다가 열대왕전 위로하고
 삼사배 허참하고 안땅에 물구받고
 보양에 하직하고 상산에 살문벗고
 만조상에 원근벗고 불사에 철용벗고
 대감에 협수벗고
 칼산지옥 불산지옥 눈지옥 얼은지옥
 구렁지옥 배암지옥 독사지옥
 억만산천 제지옥 문을 열어
 이구등락 시왕제천 왕생극락 서방경투
 부채님 귀자되어 염불 받아가는 소이다
 제일질에 진광대왕 제이에 초간대왕
 제삼에 순겨대왕 제사에 온갖대왕
 제오에 변상대왕 제구에 도시대왕
 제십에 철용대왕 열대왕전 불인사제
 일세동방 전투경 이세남방 득중경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억마그천수 나무아미타불
 사십팔일경 나무아미타불
 백마나권수 나무아미타불
 우여 으다 아무망제
 해운에 시절인지 불가에 천술는지
 시왕영검 하직없는 길을여위
 초단에 서왕자 진부전 마는계왕
 여예살이 사제삼성 받으시고
 이단에 진옥이 삼단법수 새남받고
 쇠설문 대설문에 연주당 난살가요
 금문전 돈전 받으시고
 청개홍개 받으시고 지어다

백자일에 망재님 천두하고
나리에 유자일에 산인은 성불하고
반구름 제일안에 홍무란 홍산쥐
백무란 백산쥐 이밀가 대턱받고
앞으로 염친배살 뒤우로 시왕배살
촛불행내 일백곡성 상노상압 쟁기름
발심 받으시고
우여 으다 아무망재
씩은입 썩은귀로 산우군 말미를 자자
우왕니 드러다가 열대왕전 위로하고
삼자재 허참하고 안땅에 물구받고
보양에 하직하고
만조상에 원근지게 벗고
상산에 삶문지게 벗고
불사에 철용지게 벗고
대감에 험수지게 벗고
칼산지옥 불산지옥
구렁지옥 배암지옥 독사지옥
눈지옥 불지옥 물지옥
억만산천 제지옥 문을열어
이구등락 시왕재천 왕생극락 서방경투
부채님 귀자되여 가는 날이로서이다
이령성 구루시니 90)

90) 김선몽, 《銅雀區의 祝祭와 놀이》, 中央大學校 韓國民俗學研究所(프린트본), 1992, pp. 1~28

여 백